

numbers 제 67호



주요 내용

2020. 10.16

1. 이번 주 주제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세 통계 분석]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2. 1)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이 전년 대비 38% 증가!
2)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1990년대까지 성장기를 구가한 한국 교회는 현재 위기라고 한다. 교인은 늘어나지 않고 주일 학교 학생도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 개혁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큰 위기 앞에 서면 우선 현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각 교단마다 교단 교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교단 발전과 기독교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의뢰로 교세 통계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 9월에 있었던 105회 총회에 보고했다. 이번 [넘버즈] 67호에서는 예장 통합측 총회의 양해를 얻어 교세 통계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예장 통합 교단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외 공개가 어려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교단에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 과감하게 공개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에 감사드린다.

이 자료에서 보이는 현상과 패턴은 아마 다른 교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한국 교회 전체의 현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차제에 각 교단도 교단의 실상을 파악하는 통계적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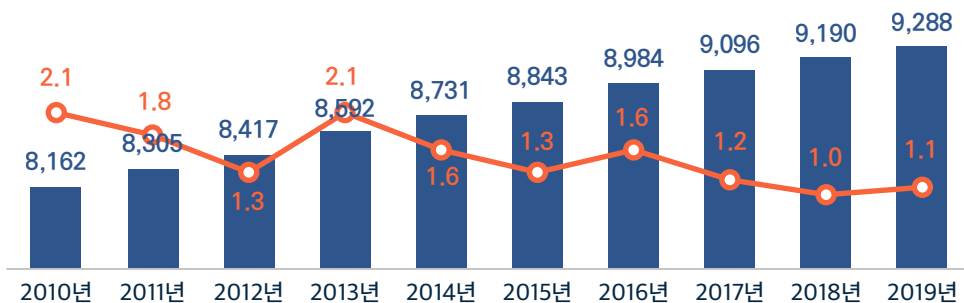


교회 숫자 성장 둔화는, 곧 교회 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 통합 교단의 교회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교단 산하에 9,288개 교회가 있는데, 10년 전인 2010년보다 1,126개가 늘었다. 13.8%의 증가율이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전후반 각각 5년 단위로 비교하면,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에는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은 증가율이 5.0%로 낮아졌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증가율은 해마다 둔화되고 있는데,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2년 내로 연간 증가율이 1% 밑으로 떨어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최근 10개년 전체 교회 수 추이(2010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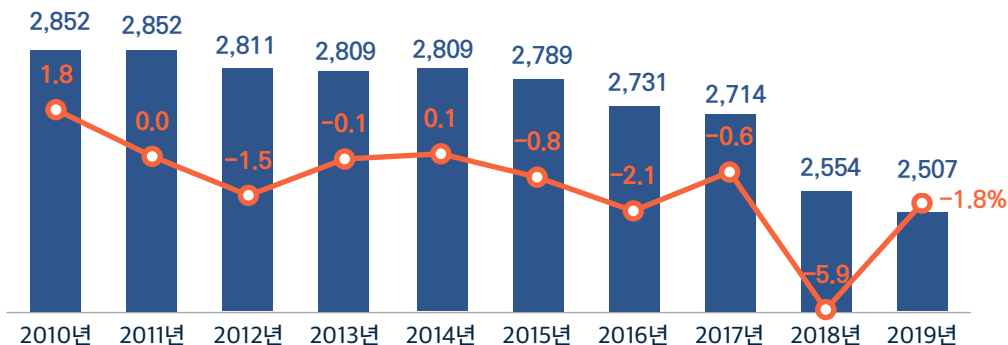
(%, 개)



- 그런데 교회 수 증가폭 둔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 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5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25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약 35만 명, 즉 12.1%가 줄어든 것이다.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에는 감소율이 1.5%로 낮았으나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에는 10.1%로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아도 앞으로 교인 수는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는 교회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최근 10개년 전체 교인 수 추이(2010년~2019년)

(%, 천 명)





교회 구조, 변화되고 있다

1)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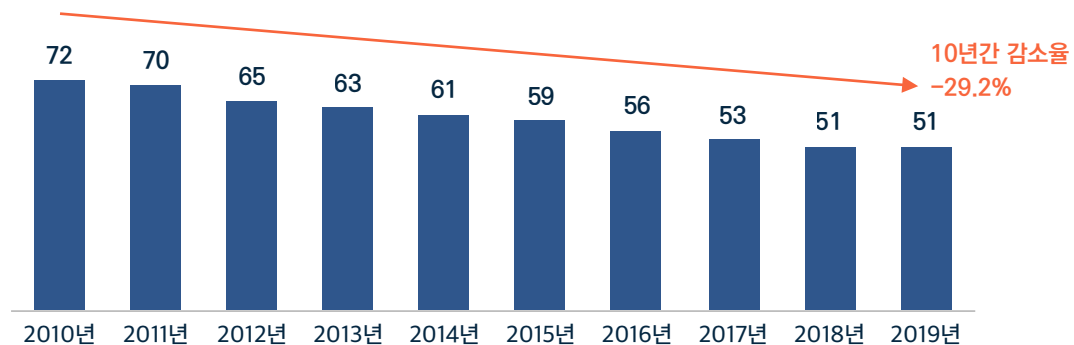
-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교회 수는 증가하였지만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 내 주는 것이 1개 교회당 평균 교인 수이다. 2019년의 1개 교회당 평균 교인 수를 중앙값*(median)으로 구 하면 51명이다. 즉 통합 교단 교회 가운데 전체 교인 수가 51명 이상인 교회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50명 이하의 교회라는 것이다.

*중앙값 : 교회는 초대형 교회부터 초소형 교회까지 교인 수의 편차가 크다. 이런 경우 산술 평균을 하면 초대형 교회의 영향 때문에 평균 교인 수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사용하는 평균값이 '중앙값'(median)이다. 중앙값은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교회의 교인 수를 의미한다.

- 그런데 2010년에 중앙값은 72명이었다. 10년 사이에 21명이 감소(감소율은 29.2%)했는데 해마다 2~3명 씩 줄어드는 것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평균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통합 교단 교회 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현금 수입이 줄어들고 교회 일꾼도 줄어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지출 및 사 역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림] 최근 10개년 1개 교회당 평균(중앙값) 추이(2010년~2019년)

(개)



2) 중소형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 교회 수는 증가했지만 중간 허리를 차지하는 중소형 교회의 비중이 약해졌다. 아래 표를 보면 2019년 통합 교단에서 전체 교인 수가 30명 이하 교회의 비중이 33.8%로 가장 높고, 31~50명 교회가 16.5%로 **50명 이하 교회가 50.3%를 차지한다**. 그리고 51~100명이 16.5%, 101명~300명이 19.0%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10년간 동향을 보면 교인 수 3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 비중이 2010년에는 23.8%였는데 2019년에는 33.8%로 무려 10.0%p 증가하였다. 초소형 교회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위 규모인 31명~50명의 소형 교회의 비중이 10년간 1%p만 증가하고 다른 교회들은 모두 비중이 줄어들었다.
-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비중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교회들은 교인 수 101~300명의 중소형 교회라는 점이다. 이 구간의 교회는 10년간 3.6%p 감소했는데 다른 규모의 교회보다 3배 정도 더 높다. 그 다음으로 교인 수 51~100명 교회가 2.7%p 감소했고, 301~500명의 중형 교회는 1.9%p 감소했다. 중소형 교회의 비중이 중대형 교회보다 많이 줄어서 이들 중소형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최근 10개년 교인 수별 교회 수 비중(2010년~201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2019년 차이
30명 이하	23.8%	24.8%	27.1%	27.5%	29.3%	29.8%	30.8%	32.1%	33.7%	33.8%	10.0%p
31~50명	15.5%	15.7%	15.6%	16.1%	16.0%	16.0%	16.4%	16.3%	16.1%	16.5%	1.0%p
51~100명	19.2%	19.2%	18.2%	17.8%	17.2%	17.4%	17.3%	17.2%	16.9%	16.5%	-2.7%p
101~300명	22.6%	22.0%	21.5%	21.5%	20.9%	20.8%	20.2%	19.3%	18.9%	19.0%	-3.6%p
301~500명	6.7%	6.3%	6.1%	5.8%	5.6%	5.3%	5.2%	5.1%	5.0%	4.8%	-1.9%p
501~1,000명	5.7%	5.8%	5.4%	5.4%	5.3%	5.0%	4.8%	4.7%	4.4%	4.5%	-1.2%p
1,001~3,000명	4.8%	4.6%	4.4%	4.2%	4.0%	4.0%	3.9%	3.9%	3.7%	3.7%	-1.1%p
3,001~5,000명	1.0%	1.0%	1.0%	1.0%	1.0%	1.0%	0.8%	0.8%	0.7%	0.7%	-0.3%p
5,001~10,000명	0.5%	0.5%	0.4%	0.4%	0.4%	0.4%	0.3%	0.3%	0.4%	0.3%	-0.2%p
10,001명 이상	0.3%	0.3%	0.3%	0.3%	0.3%	0.3%	0.3%	0.2%	0.3%	0.2%	-0.1%p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초대형 교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2019년 교인 수 30명 이하 교회의 비중이 33.8%였는데 이들 초소형 교회에 속한 교인의 비중은 2.2%밖에 되지 않았다. 또 교인 수 10,001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는 교회 수로는 0.2%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들 초대형 교회의 교인들은 전체 교인 수의 21.0%나 된다. 즉 **0.2%의 교회가 교인 2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교인 측면에서 초대형 교회의 위상은 지난 10년간 더 높아졌다. 2010년에는 초대형 교회가 25개로 0.3%를 차지했는데 2019년에는 4개 교회가 감소하여 0.2%로 비중이 낮아졌다. 그런데 교인 수는 2010년에 약 59만명으로 전체 교인 수의 20.6%였는데 2019년에는 53만명으로 줄었으나 비중은 21.0%로 오히려 0.4%p 증가하였다. 그만큼 초대형 교회의 위상이 더 강화된 것이다.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초대형 교회는 덜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표] 최근 10개년 교회 규모별 교인 수 비중(2010년~201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 2019년 증감율
30명 이하	1.1%	1.3%	1.4%	1.3%	1.6%	1.6%	1.8%	1.9%	2.1%	2.2%	1.1%p
31~ 50명	1.8%	1.8%	1.8%	16.5%	2.0%	2.0%	2.1%	2.2%	2.3%	2.4%	0.6%p
51~ 100명	3.9%	4.0%	3.9%	3.3%	3.8%	3.9%	4.1%	4.1%	4.4%	4.3%	0.4%p
101~ 300명	11.2%	11.1%	11.2%	9.6%	11.1%	11.4%	11.5%	11.2%	11.7%	12.0%	0.8%p
301~ 500명	7.3%	6.9%	7.0%	5.8%	6.7%	6.5%	6.6%	6.6%	6.8%	6.7%	-0.6%p
501~ 1,000명	11.4%	11.9%	11.5%	9.8%	11.4%	11.1%	11.1%	10.9%	11.2%	11.4%	0.0%p
1,001~ 3,000명	22.9%	22.2%	21.9%	18.4%	20.3%	21.0%	21.0%	21.4%	21.8%	22.0%	-0.9%p
3,001~ 5,000명	10.8%	10.5%	10.9%	9.6%	11.8%	11.5%	10.4%	9.6%	9.4%	9.2%	-1.6%p
5,001~ 10,000명	8.9%	9.6%	9.1%	7.2%	8.1%	7.7%	7.8%	8.1%	8.9%	8.8%	-0.1%p
10,001명 이상	20.6%	20.6%	21.3%	18.4%	23.2%	23.1%	23.6%	24.0%	21.5%	21.0%	0.4%p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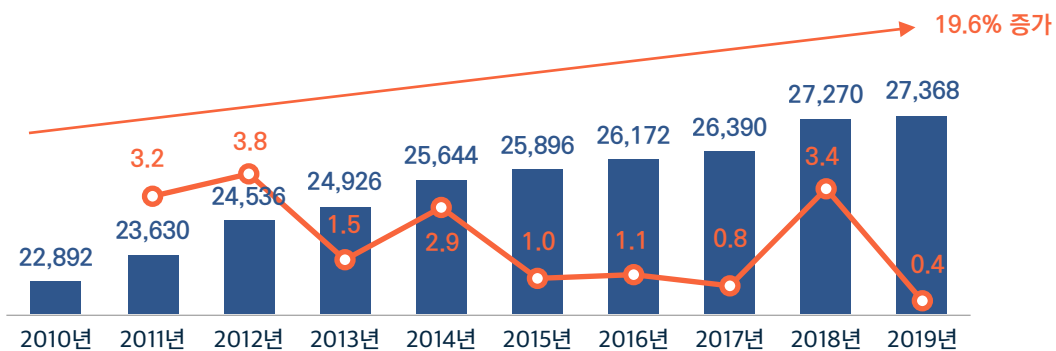
교역자 인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

1) 교역자 수 정체가 예상된다

- 2019년 교역자 수는 27,368명이었다. 2010년에 비해서 19.6% 증가하였다.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은 12.0%,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은 5.7% 증가하였다. 즉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앞으로 교역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최근 10개년 교역자 수 추이(2010년~2019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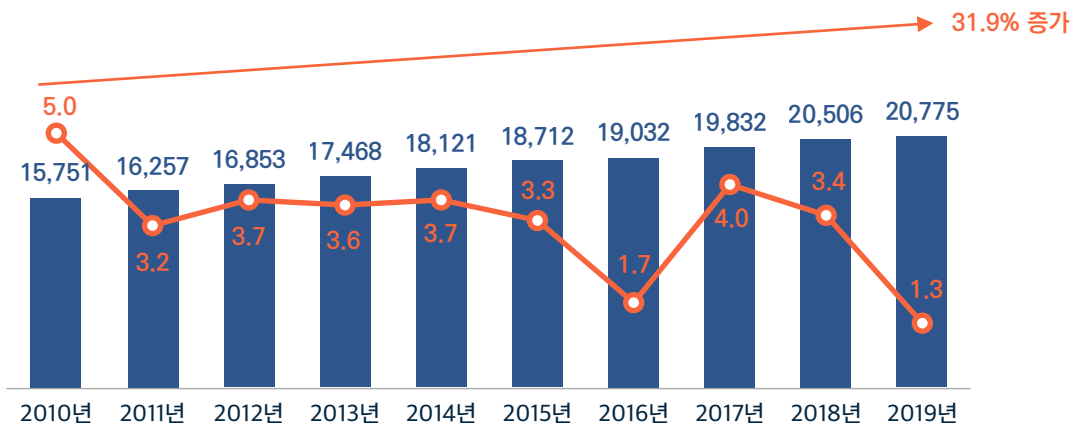


2) 목사 수의 정체가 예상된다

- 2019년 목사 수는 20,775명이었다, 2010년보다 3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런데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에는 15.0% 증가했는데,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에는 11.0% 증가하였다. 후반 5개년 증가율이 전반 5년 동안보다 감소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연간 증감률 추이를 보면 향후 목사 수의 미미한 증가 또는 정체가 예상된다. 목사 수의 감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양질의 목회자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림] 최근 10개년 목사 수 추이(2010년~2019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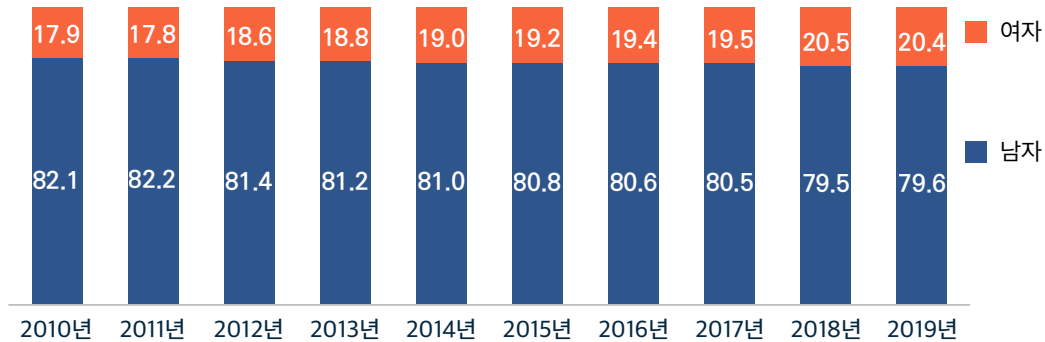


3) 여성 교역자가 증가할 것이다

- 전체 교역자의 숫자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자의 남녀 성비에서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교역자의 남녀 성비를 보면, 2010년에 남성이 82.1%, 여성이 17.9%였는데 2019년에는 남성이 79.6%로 2.5% 감소하였고, 여성이 20.4%로서 여성의 비중이 2.5% 증가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여성 교역자의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소폭 증가가 예측된다.

[그림] 최근 10개년 교역자 남녀 구성비 추이(2010년~2019년)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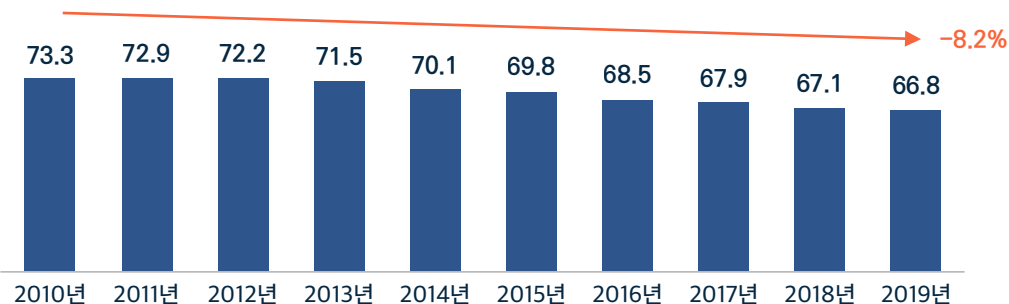


교회의 일꾼, 감소하고 있다

- 교회의 일꾼은 제직이며, 그 가운데 서리집사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을 실천하는 직분이다. 2019년 제직 수는 869,830명이었고 서리집사는 581,000명으로 서리집사의 비율은 66.8%였다.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면 8.2%가 감소하여, 매년 서리집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리집사의 비율 감소는 향존직의 비율 증가를 의미한다. 서리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면서 향존직 후보이므로 서리집사가 감소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최근 10개년 제직 대비 서리집사 비율 추이(2010년~201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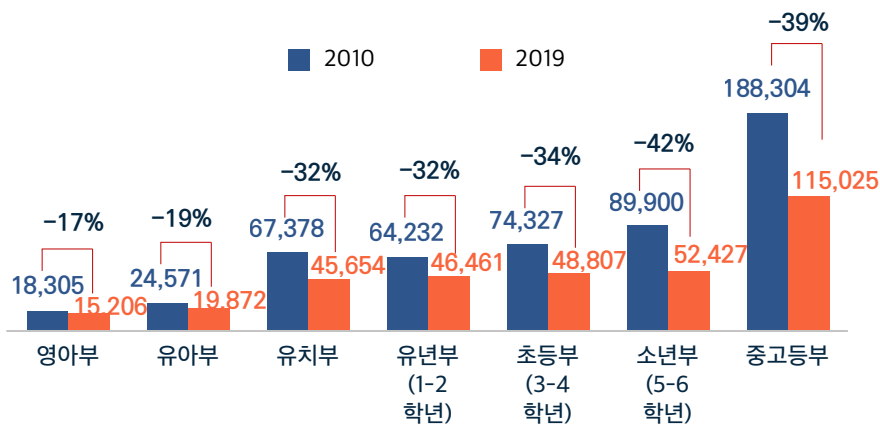
5



교회(주일)학교, 소년부를 주시해야 한다

- 교회(주일)학교 각 부서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서 오는 요인과 성인 교인이 줄어들면서 자녀도 같이 줄어드는 요인 또는 학원, 공부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의 최근 10년간 학생 수 감소율을 보면 영아부와 유아부는 10% 후반대 감소율을 보이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30%대의 감소율을 보인다. 심각한 것은 소년부와 중고등부가 40% 내외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초등부 이전 연령대보다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교회 이탈이 소년부(초등학교 고학년)와 중고등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최근 10년간 교회(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 추이(2010년~2019년) (명)



- 초등부에 해당하는 만9세~만10세 우리나라 인구가 2010년 1,200,233명에서 2019년 922,218명으로 23.2% 감소하였고, 소년부에 해당하는 만11세~만12세 인구가 2010년에 1,261,947명에서 2019년 965,160명으로 23.5%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해당하는 만13세~만18세 인구가 2010년 4,222,415명에서 2019년 2,907,136명으로 31.1% 감소하였다.
- 통합교단 교회(주일)학교 학생 변동을 우리나라 인구 변동과 비교하면 교회(주일)학교 전 연령대에서 해당 연령대 우리나라 인구 감소보다 더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최근 10년간 교회(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 추이(2010년~2019년) (명)

	우리나라 인구			교회(주일)학교 학생수 증감
	2010년	2019년	증감률	
유치부(만5세~만6세)	908,899	881,845	-29.8%	-32%
유년부(만7세~만8세)	988,763	966,130	-2.3%	-32%
초등부(만9세~만10세)	1,200,233	922,218	-23.2%	-34%
소년부(만11세~만12세)	1,261,947	965,160	-23.5%	-42%
중고등부(만13세~만18세)	4,222,415	2,907,136	-31.1%	-39%



시사점

금번 예상 통합 교단의 과거 10년간 교세 통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회 숫자 성장 둔화는 곧 교회수 감소를 가져올 것
- 2) 교회의 규모가 작아져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을 차지함
- 3) 중소형 교회, 특히 101~300명 규모 교회가 흔들림
- 4) 초대형 교회(1만명이상)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숫자는 0.2%인데 교인수는 21% 차지)
- 5) 목사/교역자 수 정체 예상
- 6) 여성 교역자 수 증가 예상
- 7) 교회 일꾼(서리집사) 감소함
- 8) 교회(주일)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 중고등부 급격한 하락세

교회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또 주변 목회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듣는 것과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교단의 수치이지만 한국 교회가 분명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몇 가지 주요 발견 사항을 정리하면, 이번 보고서 제목으로도 달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규모가 점점 작아져 전체 교회의 절반이 교인 수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만 명 이상 초대형 교회는 상대적으로 교인 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확연하게 한국 교회 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극단적인 편중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를 연결해 주는 중형교회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101~300명 교회의 경우 전체 교회의 22.6%를 차지할 정도로 30명 이하 교회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간의 교회 수 감소율이 가장 크다. 중형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각 교단 차원에서 “중형 교회 지키기 전략” 수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교회(주일)학교 문제인데, 지난 10년 간 초등학교 고학년생(5~6학년)과 중·고등학생 층에서 감소율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서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증가되는데 개교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시급하다. 또한 이런 추세로 가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대 뒤 한국 교회는 현재보다 심각하게 줄어든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 교회(주일)학교 학생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현재 교회 내 학생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현재 한국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한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20년 예기치 못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으로 인해 벌써 데이터 상에 개신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떨어지고, 과거 교회 출석자가 집에서 온라인예배도 드리지 않는 수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가 성장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놓여 있듯, 한국 교회 역시 지금까지 성장해 온 방식의 재설정, 즉 현재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급속한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혁신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이 전년 대비 38% 증가!
2.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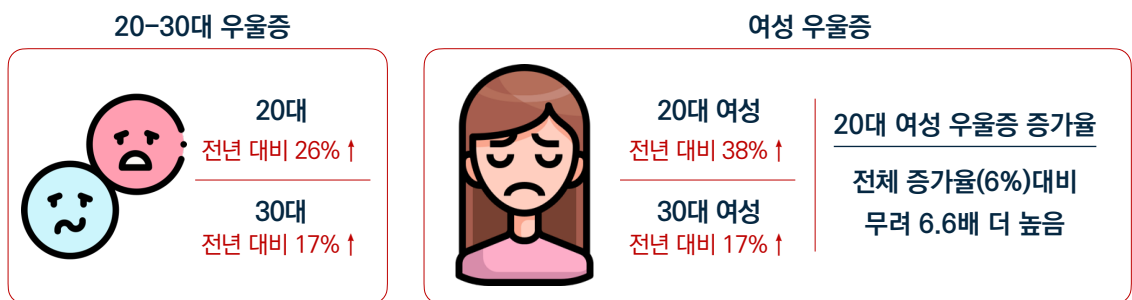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여, 타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진단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의하면, 올 상반기(1~6월) 우울증 진단 환자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는 26%, '30대'는 17%로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 코로나19가 20~30대 젊은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20대 여성의 우울증 증가율이 38%(남성 증가율 1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블루 현상을 더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020 상반기 우울증 진단 인원 증가율(2019년 상반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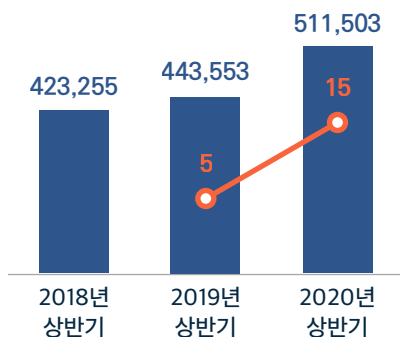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박정 의원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2월과 6월 우울증 환자도 급증', 2020.10.07

● 2020년 상반기,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 및 심리 상담' 15% 증가

- 2020년 상반기(1~6월) 정신건강 관련 문의 및 심리 상담 건수는 511,503건으로 2019년 상반기 443,553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연도별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
및 심리 상담 현황 (%)



*자료 출처 : 박정 의원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2월과 6월 우울증 환자도 급증', 2020.10.0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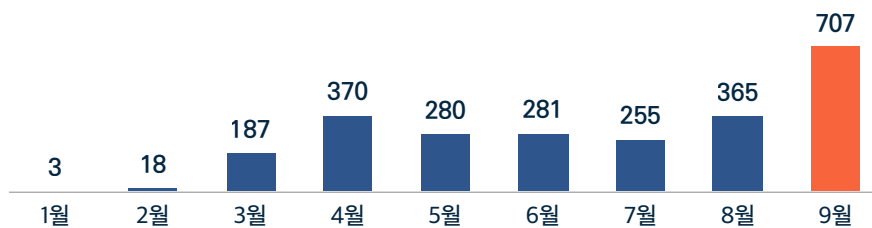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앱/리테일 분석 기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화상회의 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9월 한 달간 1회 이상 '줌'(ZOOM Cloud Meetings)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남

[그림] 올 해 9월까지 월 1회 이상 줌(ZOOM) 사용자

(만 명)



*자료 출처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비대면 시대, 한국인 '줌' 이용자 수는?', 2020.10.05(전국, 10세 이상 남녀 60,000명, 1010.09.09.-09.30)

●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1명 정도 줌(ZOOM) 사용!

- 현재 우리 국민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3,868만 명 가량 되는데, 이중 4명 중 1명(25%)이 줌(ZOOM)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한 달간 줌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707만 명으로 전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18% 정도로 나타남

[그림] 줌 사용 인구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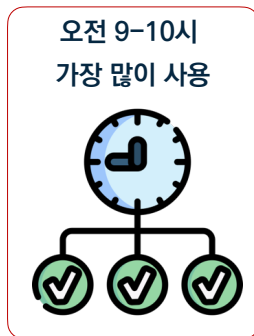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비대면 시대, 한국인 '줌' 이용자 수는?', 2020.10.05(전국, 10세 이상 남녀 60,000명, 1010.09.09.-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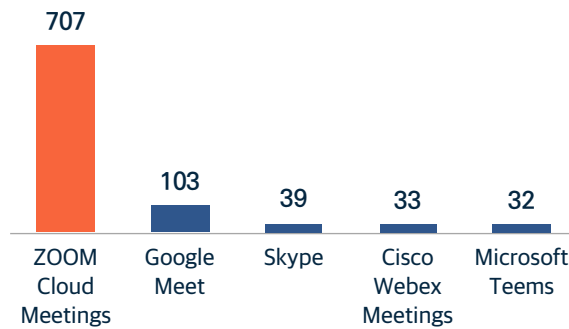
● 하루 중 '줌'(ZOOM) 사용 시간, 오전 9~10시에 가장 많이 사용함

- 줌 사용자들은 하루 중 오전 9~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화상회의 앱 중 9월 한 달간 1회 이상 사용한 사람은 '줌'(707만 명) 다음으로 Google Meeting 103만 명, Skype 39만 명, Cisco Webex Meetings 33만 명, Microsoft Teams 32만 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하루 중 ZOOM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간 (%)



[그림]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사용량(9월 중 1회 이상)(만 명)



*자료 출처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비대면 시대, 한국인 '줌' 이용자 수는?', 2020.10.05(전국, 10세 이상 남녀 60,000명, 1010.09.09.-09.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20세는 셋 중 하나, 40세는 5명 중 한명...100살까지 산다](#)

조선일보_2020.10.13.

[직장인 30% “내 직업은 최소 2개”](#)

조선일보_2020.10.15.

[직장인 10명 중 7명 “나도 동학개미”\(주식투자\)···“자산 불릴 수 있는 기회”](#)

동아일보_2020.10.14.

[‘내 노후가 걱정’ 40대 불안심리 가장 높아···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져](#)

매일경제_2020.10.14.

[서울대 로스쿨 69%, 의대 85%··· 부유층 자녀, 계층이동 점점 어려움](#)

조선일보_2020.10.15.

[\[고시원 탐사기\] 나혼자 살다, 남몰래 죽다](#)

경향신문_2020.10.14.

경
제

및

북
한

관
련

[코로나 ‘돈맥경화’···230조 더 풀려도 안쓴다](#)

매일경제_2020.10.12.

[우리나라 평범한 아파트 기준 '4억원'됐다](#)

서울경제_2020.10.12.

[한국 평균임금 4만2천300달러···OECD 35개국 중 19위](#)

연합뉴스_2020.10.11.

[북한 영양결핍 인구비율 48%, 세계 2위](#)

연합뉴스_2020.10.12.

[김정은, 칼날 위에 서다](#)

중앙일보_2020.10.14.

큐
레
이
션

[5060 ‘신중년’ 세대의 행복지수 높이려면?](#)

한겨레_2020.10.12.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6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신규 후원자 | 임성빈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